

우선 양님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어요(까먹었거든요).

요즘들어 더욱더 서울로 이사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중입니다. 출퇴근길 3시간 가량을 잡아먹는 사실도 이제는 좀 아깝더라고요. 오늘은 아침부터 한숨이 조금 나오는 그런날이라 그냥 양에게 편지를 쓰고싶어지고 괜시리 위로받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. 늘 답답하고 입구가 좁아지는 기분이 들땐 양이 생각이 나요.

끝 (그냥 내가 하고싶은말만ㅎㅎ)